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듯한



강의(18) 12연기 가운데 10번째 항 有(존재)란 무엇인가

저번 강의에서 12연기를 통해 자아가 어떻게 강화되고,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12개 항목 가운데 아직 4번째부터 9번째 항목까지 밖에 살피지 못했습니다. 붓다교사의 분류에 의하면, 현생의 고리박에는 다루지 못했지요. 그 나머지를 더 살펴봅시다.

직업, 취향, 습관, 기분 등등에 따라 어떤 자국을 수용하고 어떤 자국을 배제할 것인가는 각기 서로 다른 지향도를 그림니다. 예를 들면,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지 않다"는 말도 있지요. 이 속담들은 직업과 개성에 따라 자국과 반응의 수용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냇물도 "나, 이렇게 살다 갈래"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불교는 이들을 억지로 붙들어 교육시키거나, 감옥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불교는 "진정, 너는 행복하냐"고 탄핵을 겁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너는 그 행복의 이면에 있는 삶의 근본 조건과 그 심연을 들여다본 적이 있느냐."

불교는 단호히 말합니다. "탐욕과 공격성에 의해 추동되는 삶 속에서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없고, 그것은 갈등과 좌절을 피할 수 없다" 대상을 향한 소유와 지배는 어느 한 대상을 취득하고 동화시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또 다른 대상을, 그리고 보다 큰 대상을 향해 손을 벌리고, 희희거립니다. 그 대상은 구체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 그리고 물질적인 것과 인격적인 것 모두를 향해 있습니다. 재산, 명예, 권력뿐만 아니라, 인간은 타자인 인간을 소유하고 지배하려 합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것인데, '그들'도 또한 너의 소유를 탐내고 너를 지배하려 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모든 사람들이 '소유'와 '탐욕'의 관점에서, 사물을 인식하고

판단하고 조정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세계는 박제되고, 사람은 소외됩니다.

이리하여 분식 고요했던 세계는 인간의 관심에 의해, 소유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12연기의 10번째 항목인, '유(有)'가 바로 이 사태를 의미하는 바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유와 축적! 기억하십시오. 세계는 바로 이 사유(私有)를 통해 비로소 '존재'하게 됩니다.

실지요. 보려는 욕망이 없으면 눈도 또한 없습니다. 귀도 코도 혀도 몸도 의식도 다 그렇습니다. <반야심경>을 기억할 것입니다. 공중(空中)에는 안이비설신(眼耳鼻舌身)도 없고, 색성향미촉법도 없습니다. 당연히 이 둘이 교묘한 결과인 안이비설신(眼耳鼻舌身)도 없겠지요.

세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감각기관과 그 대상이 먼저 있어야 하고, 그 전에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명저

무엇입니까. 바로 법(法)과 상(相)입니다. 여기서 법(法)은 객관적 실재를 가리키고, 상(相)은 의지와 표상으로 하여 드러나는 주관적 세계를 가리킵니다. 시급히 할 일은 각자가 가진 것은 상일 뿐, 법이 아니라는 것, 우리 모두가 자아의 주관적 환상 속에서, 그 편견을 의지하여(住) 살고 있다는 것을 화들짝 깨닫는 일입니다. 이곳이 불교의 첫걸음이고, 주춧돌입니다. 이 깨달음이 있어야, 불교의 목표인 무아(無我)로 한 걸음 나

제가 보는 한문본 <금강경>에 붙어는 몇 가지 부록이 달려 있는데, 거기 삼성(三性)을 두고 읊은 부대사(傅大士)의 시가 실려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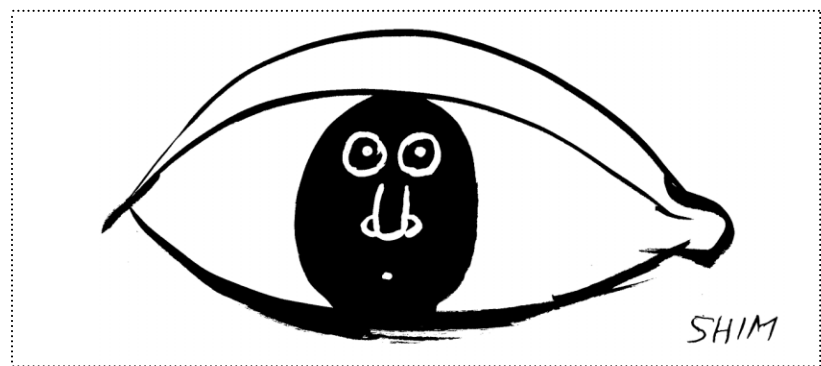
"망계(妄計)로 인한 집착인 계지, 새끼줄을 뱀으로 착각하다니. 마음 속 의식이 곧 암귀(暗鬼)가 되고, 눈에 병이 들면 허공에 없는 꽃이 어지럽지. 풍경은 하나인데, 세 사람이 보는 것이 왜 이렇게 서로 다를까. 이 비밀을 깨달으면 명(名)이 부실하다는 것을 알아야. 그럼, 백우거(白牛車)를 유유히 끌텐데."

백정은 버드나무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눈이 있어 보는 게 아니라, 보려는 의지가 눈을 만들었다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가 김춘수 시인의 '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생판 모르는 도시나 나라인데, 누군가가 거기 있거나 싶었다는 기억으로 하여 아주 가깝게 다가오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역시 세계는 주관적으로 '의미화'되어서만 존재하는 무엇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눈이 있어 사물을 보게 되었고, 귀가 있어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보려는 '욕망'이 눈을 만들었고, 들으려는 '의지'가 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보려는 욕망이 없으면 사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코앞에 두고도 안채 있었거나



로, 세계는 의지의 산물입니다. 세계는 그 의지를 통해 구성된 표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이 제목을 불교식으로 번역하면 곧 삼계유심(三界唯心), 만법유식(萬法唯識)이 됩니다. 모든 존재는 의식으로부터 파생되었거나, 그 활동의 결과입니다.

이 현상을 본격적으로 파고드는 것이 유식입니다. 유식에서 선명히 갈라보는 것이

아갈 수 있습니다.

유식에서 말하는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이란 무엇인가

유식은 삼성(三性), 즉 '우리가 사물을 보는 세 가지 시각'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첫째 것이 변계소집(遍計所執)입니다. 변계소집이 바로 '인간의 의지와 표상에 의해 드러난 세계'를 가리킵니다.

주장사 따라... ① 자장율사의 지계

조태호

어느날 자장은 속세에서... 처와 자식은 무엇인가? 처성자목(毒城子鞠)... 신라후기 진골... 소판(蘇判)의 김영의 아들 이며... 당시 벼슬 순서로 17등급중 3번째... 왕도 될수있는 귀족집안의... 김성종량(金成宗亮)은 4세 되던해...

아내는 사내를 가두는 성(城) 같고... 아내의 좁은오면 욕심... 허영등에... 휘말리면 그것 또한 문없는 성... 스스로 머리를 자른후... 난 이제부터 승려가 되겠소...

벼룩없고 게으르고 포악하고 머리색은... 문없는 지옥과 같으니... 전답과 노비 재산은? 자식과 사는 데 지장 없었거요... 여빈! 곧 벼슬도 내릴텐데 왜 이럽니까!... 원병사를 짓고 범명도 자장이라 스스로 지었다...

흥! 한두달 있다가 오겠지... 벌써 여섯달인데 안 돌아와!... 어머이요!... 선덕여왕께서 벼슬을 내렸소!... 거부한다...

여보! 대체 무엇을 공부한다는 거요?... 이제 여보란 말은 함당치 않소... 2번째 어머이요, 3번째 어명을 거부하면 목을 베라 하오... 자장은 편지를 쓴다... 부친님의 계율을 어기고 백년을 산니 차라리 계율을 지키며 단 하루를 살겠소...

자장율사(생물연대미상): 선덕여왕 5년(636)에 당나라로 가서 원형스님에게 배움. 청량산에서 시리를 얻어 귀국했다. 황룡사 9층담 건립을 건의했고 동토사 등 보국장건.

네티즌 교리문답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란?

1.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란 말은 <반야심경>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색과 공을 하나로 보라는 뜻인데, 아직도 저는 몰로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불자네티즌 여러분의 자상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D 태극)

답1: 색과 공을 가려 보려는 '분별심' 때문입니다. 이를 전도몽상(轉倒夢想)이라 합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색과 공이 다르지 않다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색(물질)과 공(허공)이 다르지 않은 것을 체득하면 무집착과 무심이 생겨납니다. 이것을 반야행이라고 합니다. 또한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체득해 가는 과정이 바로 '상구보리' 하는 과정이 되고 상구보리하는 가운데 동시에 하화중생이 되는 것입니다. (도덕산)

답2: '색이 공이다'라는 말은 색(물질)이 생성소멸함으로써 고정된 실체나 자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들이 공(형범, 헛것들)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헛된 것들(空)에 매여 생사윤회의 고통을 당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허망한 이 세상과 거짓된 나를 버리고 깨끗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추구가 바로 허망한 색(물질)의 허무(공)에서 탈피해 그것을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과객)

답3: 색즉시공이란 말은 색(色), 수(受), 상(想), 행(行), 식(識)의 오온의 하나하나가 모두 공(空)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첫 번째 설명입니다. 그 다음으로 역부여사라고 수, 상, 행, 식을 차례차례 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색즉시공이란 "오온은 무아(無我)이다" 혹은 "오온은 연기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설명을 다시 한번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색에는 색을 이루는 주체 혹은 실체가 없다, 수에는 수를 받는 주체가 없다는 설명인 것입니다. 대승에서는 공과 색을 이(理)와 사(事)란 용어로 설명하여 이사무애로 말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세상을 헛것이라 든가 허무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단지 공이라 말할 뿐입니다. (후박나무)

답4: 귀하게 보이면 귀하게 보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천하게 보이면 천하게 보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천하게 보이는 것을 굳이 귀하게 보려고 하면, 그렇게 애쓰고 있구나 하고 또 알아차리십시오. 색과 공을 나누려고도 말고 합치려고도 말고 보이는 그대로 보되, 원래가 돌 아님을 믿고 가는 가운데 서서히 불이법문의 관문을 통과하리라 생각합니다. (무극)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1. 소유하려는 욕구 2. 광해군 때 서궁에 유배된 인목대비 김씨의 생활을 기록한 것. 3. 실재 이야기 4. 은행에 당좌 예금을 가진 사람이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줄 것을 은행 등에 위탁하는 유가 증권 5. 임제종, 운문종, 조동종, 위양종, 법안종 등 선종의 다섯 종파를 일컫는 말 6. 고요한 가운데 움직임을

정답은 26면에

1. 작은 것을 탐하다 큰 것을 잃음 7. 삼계(三界)의 하나로, 식욕·음욕·수면욕을 갖고 있는 유정들이 사는 곳 8. 길한 날 9. 쫓아내거나 몰아냄 10. 미결수의 상대적 의미 11. 화를 실은 배 12. 결과 속이 다름 13. 크게 깨달음 14. 바늘처럼 뾰족하게 돌진 것 15. 종파의 가장 높은 어른.